

곡성 미소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소식지

📍 제8호 / 2025년 12월



곡성미소

제8호 / 2025년 12월



CONTENTS

곡성미소

제8호 / 2025년 12월



발행일 2025. 12.
발행처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구독문의 061-884-8212
twosky@gokmg.or.kr

곡성미소는 곡성군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
(www.gokmg.or.kr)에서 E-book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곡성미소'는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소식지의 앞
글자를 딴 말입니다.

04 2026년 상반기 주요 사업 안내

- ① 2026년도 곡성군 장학생 선발
- ② 곡성군 성인문해교실
- ③ 곡성형 미네르바 대학 운영
- ④ 곡성 장인 아카데미
- ⑤ 디지털 기반 창작 프로젝트
- ⑥ 상반기 우리동네 평생문화 공부방
- ⑦ 상반기 평생학습 정기강좌
- ⑧ 청년 시민학교
- ⑨ 테마별 시민아카데미
- ⑩ 모두에 힐링클래스 운영
- ⑪ 시니어 생활문화 교실
- ⑫ 곡성꿈키움마루 겨울방학 로봇 교육
- ⑬ 곡성군립청소년관현악단 겨울캠프
- ⑭ 학교연계 창의융합 교육
- ⑮ 학교연계 놀이수학 교육
- ⑯ 곡성군 글로벌 캠프 운영
- ⑰ 찾아가는 영어쌤
- ⑱ 유아 '숲모험놀이 교육' 운영
- ⑲ 교과연계 마을교육과정 운영
- ⑳ 중학교 진로 심화동아리 상반기 운영

- ㉑ 중학생 학과체험
- ㉒ 중학생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

09 곡성교육+플러스

- | 평생교육팀 |
- 10 평생학습 박람회
 - 13 청년 시민학교
 - 16 모두애히링클래스(술과 인문학 여행)

- | 창의교육팀 |
- 18 어린이 수학동아 수학캠프
 - 20 지역무형유산 교육
 - 23 청소년 축제

- | 지역교육팀 |
- 26 글로벌 교육(유치원·초등 영어교육)
 - 29 진로콘서트
 - 32 초등 교과연계(곡성역사) 강사 교육

34 사진으로 보는 곡성교육 이야기

42 기부금 관련 안내

- 기부금 조성 내역
- 기부금 사용 내역
- 기부 절차 안내

•• 곡성미소 구독자 참여 이벤트



2026년 상반기 주요 사업 안내



21 중학생 학과체험

시 기 | 2026. 5.

장 소 | 전남과학대학교

대 상 | 석곡중 1학년(15명), 옥과중 1학년(45명)

내 용 | 지역의 대학교와 연계하여 흥미있는 학과 및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 운영

문 의 | 061-884-8241(지역교육팀)

22 중학생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시 기 | 2026. 5. ~ 6.

대 상 | 곡성중 1학년(81명), 석곡중 1학년(15명), 옥과중 1학년(45명)

내 용 | 진로멘토 사람책과의 만남을 통해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 운영

문 의 | 061-884-8241(지역교육팀)

곡성교육+플러스

| 평생교육팀 |

- 10 평생학습 박람회
- 13 청년 시민학교
- 16 모두애히링클래스(술과 인문학 여행)

| 창의교육팀 |

- 18 어린이 수학동아 수학캠프
- 20 지역무형유산 교육
- 23 청소년 축제

| 지역교육팀 |

- 26 글로벌 교육(유치원·초등 영어교육)
- 29 진로콘서트
- 32 초등 교과연계(곡성역사) 강사 교육



제2회 곡성군 평생학습박람회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관내 평생학습인이 배움으로 화합하는 큰 행사인 곡성군 평생 학습박람회를 격년으로 이어 오고 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평생학습박람회는 2천명이 넘는 군민과 함께 다양한 체험, 평생 학습 경연대회, 문해골든벨, 어르신들의 시화전, 캐리커처 체험, 평생교육 놀이마당, 인생네컷 촬영, 시화컬러링 활동 등 매우 다채롭게 꾸며졌다.

특히 올해 처음 치러진 평생학습 경연대회는 지난 1년간의 배움을 마음껏 뽐내는 학습 자들의 열기로 가득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신나는 실버댄스와 귀농귀촌 프랑스자수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해골든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이내 진지한 모습으로 정답을 거침없이 써 내려갔다. 기쁨과 아쉬움의 웃음이 가득했던 골든벨의 금상은 고 달면 대사리 학습반의 이우명 어르신이 차지했다.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기차마을을 찾은 주말 관광객에게도 크게 호응을 얻으며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평생학습의 감성과 깊이를 더한 시, 개성 넘치는 작품, 못다 한 공연 연습이 한창인 경연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골든벨 참가자까지... 이 모두가 함께 만든 이날의 박람회는 학습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참가자 후기

- 김*선(평생학습 강사)**
공연을 위해 특별히 만든 프로그램을 연습하느라 학습자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힘들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둬 너무 행복했다. 경연 성적이 나오기 전부터 공연 요청이 들어와서 너무 뿌듯했고, 전혀 제 나이로 보이지 않는 70대 우리 학습자들을 다 업어주고 싶은 만큼 고맙고 자랑스럽다.
- 신*지(경연대회 심사위원)**
많은 주민들이 함께한 경연대회의 심사를 보면서 평생학습이 삶을 얼마나 기쁘고 풍요롭게 하는지, 그리고 학습공동체를 연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며 이번 박람회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다. 전시작품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자랑하는 학습자의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그 열정에 감탄했다.

김*숙(재단 관계자)
 어르신들의 삶에서 평생교육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나 스스로가 느꼈던 점이었는데, 박람회장에서 잘 알고 지냈던 학습자들을 보면서 응축된 커다란 에너지를 받았다. 원하는 무엇이든지 배우면서 자신감과 행복을 느끼는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것이 너무 확실해 보였고, 앞으로도 재단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배움의 행복을 채워주기를 바란다.

김*복(경연 참가자)
 지역 주민들과 학습공동체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도시에서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던 일들이 멀게 느껴지는 만큼 시군동했었는데, 귀농 후에는 내가 이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진다. 이런 행사에 내가 함께 배우고, 하나의 공동체에서 머리를 맞대고, 만들고, 보여주고, 참가하고, 상을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게 됐다. 나 같은 사람이 지역에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남 일같이 느껴지지도 않기도 해서 함께 학습공동체 활동을 권유할 용기가 생겼다.



청년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곡성군 청년시민학교’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곡성군 청년시민학교를 운영한 지 2년이 되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깊이 있는 교육 내용, 더 풍부한 경험, 더 단단한 네트워크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비록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의 핵심 조직이나 고연봉이 보장되는 산업기반이 없고, 청년인구 대비 청년정책자금 예산 비율이 낮으며, 노인 중심의 군 단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열심히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과정은 조례 제·개정 절차, 청년 정책, 주민참여예산, 정책 발굴 방법 등 딱딱하지만 청년이 알아야 한다는 목적이





뚜렷했다. 각자의 고민이나 불만을 방치하지 않고, 정책 제안으로 바뀌보는 과정도 꾸준히 실천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그 결과, 청년시민학교의 이름으로 2026년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을 제안했고, '곡성 청년 취창업박람회', '시민 아이디어 워크숍', '학교 주변 횡단보도 어닝 설치 사업' 등 3개의 사업이 채택되었다.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반영이 안 되던 것들이 이번 청년시민학교를 통해 결과를 보게 되면서 청년들은 지역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붙었고, 더 넓고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에서 청년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외계층이 되어버린 어려움을 딛고, 2026년에 같이 배우고 싶은 내용, 같이 보고 싶은 곳, 같이 고민하고 싶은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참가자 후기

김○순(청년시민학교 운영위원)
재단과 교육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단순한 평생교육 강좌가 아니라는 것에 공감했고, 운영위원회를 꾸려 3년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내용을 구성·홍보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고민할 부분과 학습자로서 고민하는 부분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창의성, 민관의 파트너십, 약간의 설렘도 느꼈습니다.
2년째 잘 이어져 오는 곡성군 청년시민학교가 내년에도 작지만 큰 울림으로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유○열(청년시민학교 수강생)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청년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 공청회, 위원회 등 많은 정책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곡성군 청년시민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좀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 배움으로 그치지 않고 영향력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행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와 만족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호흡이 긴 교육에 직접 참여하면서 원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빛을 발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배우면서 지식만 얻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오랜만에 느껴서 행복했습니다.



모두愛 힐링클래스(술과 인문학 여행)

곡성군미래교육재단에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요구를 수용해, 배우면서 힐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특히 모두愛 힐링클래스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으로 다시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민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고 있다.

올해 힐링클래스는 음주문화의 대중화에 따라 지역민에게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술과 관련된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하고자 '술과 인문학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와인, 한국 전통주, 일본 전통주, 위스키 등 총 4종의 주류를 주인공으로 했다.

'와인의 시간: 인간의 인생을 담은 숙성', '술로 읽는 한국의 멋: 우리 술과 풍류의 인문학', '알고 마시면 더욱 맛있는 사케의 세계', '위스키 한 잔에 담긴 예술' 등 시간마다 그 술에 맞는 인문학을 가미했으며, 각 술에 맞는 전용 잔도 준비해 문화·예술·인문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덕분에 이날만큼은 유쾌하고 지적인 저녁으로 마무리했다.



참가자 후기

양○진(수강생)

평소에 술을 많이 즐기는 편은 아니었는데, 인문학과 함께 술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강의 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술을 마시는 것보다 술에 대한 역사, 양조, 술에 얽힌 사건 등 재미있는 수업을 듣고 마시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졌고, 2시간 반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술과 어울리는 전 용 잔에 마셔서 너무나 조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힐링클래스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최○영(수강생)

전통주를 마시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게 이렇게 흥미로운 줄 몰랐어요. 다음에는 막 걸리를 마시면서 친구들에게 해설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우는 즐거움도 함께 느꼈습니다. 이제는 술을 한잔 마실 때에도 이 술과 관련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함 께 연상될 것 같아요. 멋있고 맛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주류클래스가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 이번 "술과 인문학 여행", 정말 강추합니다.

김○범(수강생)

홍보할 때부터 꼭 수강해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신청에 성공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에는 4가지 종류의 술을 다 마셔봐야지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었는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 니, 몰랐던 술에 대한 지식까지 얻어서 '미래교육재단에서 하는 수업은 정말 특별하구 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이와 직업을 떠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주민들과 만나볼 수 있는 점도 저는 무척 좋았습니다.

진○연(수강생)

지역 청년으로서 이 지역이 조금은 지루한 느낌이 들었던 찰나에 이런 수업을 만나게 되 서 짧게나마 너무 즐거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번 하는 수업이 이렇게 나에게 저녁 시간의 활력을 더해주는구나 하고 느꼈고, 특히 수업 내용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친구와 함께 수강해서 외롭지도 않았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공통 관심사로 더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 너무 행복한 배움이었습니다.

곡성 아이들의 수학 세상 확장! '어린이수학동아 수학캠프'

지난 12월 6일, 곡성창의융합교육관 꿈키움마루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호기심 어린 질문으로 가득 찼다. 바로 [어린이수학동아 수학캠프]가 열렸기 때문이다.

업무협약의 결실, 우수 콘텐츠를 곡성으로!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최근 (주)동아시아인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수학과 과학 교육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킬 계기를 마련했다. 그 첫걸음으로 진행된 이번 수학캠프는 단순한 체험 행사가 아니라, 서울·경기권에서 전국단위 모집을 통해 제공되던 우수한 수학교육 콘텐츠를 곡성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가져온 특별한 자리였다.

이번 캠프는 '어린이수학동아'의 흥미로운 수학 콘텐츠에 전국수학교사모임 소속 교사들의 전문성이 더해져 교육의 질을 높였다.

놀이로 배우는 생각하는 수학

캠프는 초등학생(1~2학년)을 대상으로 학년 특성에 맞춰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1학년, 오후에는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여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 개념을 놀이 활동을 통해 풀어나갔다.

종이를 접고 오리고, 블록을 쌓고 규칙을 찾으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왜 그럴까?"를 묻기 시작



했다. 정답을 찾는 과정보다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캠프 곳곳에서 강조됐다. 특히 '수학동아 콘텐츠 미션' 활동에서는 잡지 속 이야기들을 직접 체험으로 연결하며,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고,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또 해보고 싶어요!"라는 말이 이어졌다.

아이들은 서로 즐겁게 문제를 내고 맞춰보며 캠프를 마무리했다. 이 작은 경험이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긍정적인 씨앗이 되었기를 바란다.

지역 교육 격차 해소 기대

이번 캠프는 그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양질의 수학 콘텐츠를 곡성의 아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학은 단순 계산을 넘어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기초 학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아이들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교육 기회를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자 후기

이라운(초등 1학년)
스도쿠 퍼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실 �도쿠는 혼자 하면 머리 아프고 어려운데, 여기서는 친구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이건가? 저건가?' 이야기하면서 푸니까 술술 풀렸어요. 어려운 문제도 친 구랑 힘을 합치니까 금방 해결해서 진짜 뿌듯했어요!

정유찬(초등 2학년)
블록으로 직접 입체퍼즐을 만들어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말 재밌었어요! 선물 받은 키트로 친구랑 누가 더 빨리 푸는지 시합할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오늘 캠프 진짜 최고였다고 말해줄거예요.

지역무형유산

'우리열과 함께 하는 살아있는 미래 교육'

곡성군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된 '곡성 죽동농악'이라는 지역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이 소중한 유산을 우리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활력 넘치는 판굿부터 개인 기량이 돋보이는 개인놀이, 아슬아슬한 버나놀이, 흥겨운 죽방놀이, 웅장한 큰기놀이 등 다채로운 구성을 통해 호남좌도농악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학생들은 농악대가 함께 굿을 치며 어울리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게 되며, 역동적인 가락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 전통 예술



의 리듬 속에서 건강한 정서와 신체적 리듬감을 키울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 고장의 무형유산을 직접 체험하면서 지역 문화에 대한 깊은 자긍심을 느끼고, 전통 예술이 가진 아름다움과 형식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는 기회를 얻는다.

지역무형유산 체험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전통의 가치 속에서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앞으로도 지역 문화와 연계한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자 후기

이○화(참여 학생)

학교에서 농악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연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농악 선생님들께서 공연을 너무 훌륭하게 하셔서 놀랐고, 무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농악의 매력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연 관람에 그치지 않고 악기를 직접 체험해 보고 배우는 시간이 있어서 더 재미있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농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죽동농악은 문화재인 만큼, 앞으로도 잘 보존되어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석(참여 교사)

“리듬과 선법은 그 무엇보다 더 깊숙이 혼의 내면으로 침투하며 우아함을 가져다줌으로써 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네. 그것들은 누가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경우 그를 우아하게 만들고, 누가 나쁜 교육을 받았을 경우 그를 그와 반대되는 사람으로 만드네.” (플라톤, 『국가』, 401d)

“악(樂)을 깊이 파악해 그것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온화하고 평탄하며, 바르고 곧으며, 자식같이 사랑하며, 참되고 미더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난다.” (『예기(禮記)』 중 「악기(樂記)」 악화(樂化) 편)

음악 교육이 이론적 지식과 발성 및 기악과 같은 기술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정(情意)까지 영향을 미치는 동서고금에 두루 통용되는 상식입니다. 특히 우리의 농악은 직분에 따른 규율의 중요성을 내면화시키는 동시에, 그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적 미덕을 알려줍니다. 가락의 합을 맞추며 땀 흘리는 과정 속에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희생과 애착의 중요성을 배우고, 그 노력이 무겁던 육신을 보다 자유롭게 춤추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는 공화(共和)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악은 지역민을 하나로 묶고, 자긍심을 길러 주며, 자신이 나고 자란 터전에 대한 애착을 길러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섬진강의 맑은 물과 곡성을 에워싼 아름다운 산악이 곡성의 아들, 딸들을 모두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먹고살기 위해 우리 학생들은 결국 곡성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어릴 적 경험한 곡성의 전통, 곡성의 가락이 그들의 기억 속에 있다면, 곡성은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고향으로 마음속에 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 세대를 잇는 하이-레트로의 힘!

곡성군미래교육재단과 곡성·옥곡청소년문화의집이 함께하며,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청소년 축제(하이틴 페스티벌)’가 올해도 성황리에 열렸다. 관내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 운영단원 100여 명이 프로그램 구성부터 운영 방향, 역할 분담까지 자발적으로 도맡아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올해는 ‘하이틴, 하이레트로’를 주제로 70년대 감성을 그대로 재현하여,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 세대까지 함께 즐기는 세대 공감형 축제로 호평을 받았다.

이 축제는 단순한 놀이 행사를 넘어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축제의 모든 과정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주도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100여 명의 운영단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 능력과 팀워크를 배우며, 하이레트로라는 주제를 통해 이전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함으로써, 세대를 뛰어넘어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넓힐 수 있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청소년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참가자 후기

조진석(청소년 운영단원)

HI-TEEN FESTIVAL 운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성과는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운영단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닌 축제의 핵심 기획자로서 부스 아이디어 구상, 예산 집행, 홍보 전략 수립, 현장 운영 등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한 덕분에 운영단은 축제에 대한 강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통해 높은 성취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또래의 시선과 관심을 반영해 레트로 콘셉트 체험 부스처럼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함으로써, 축제에 참여한 다른 청소년들의 만족도 또한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HI-TEEN FESTIVAL은 청소년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자 운영자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고, 이것이야말로 축제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자 핵심 가치였습니다.

한아영(청소년 운영단원)

이번 행사는 70~80년대 레트로 콘셉트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과거의 환경과 정서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순히 관람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경험의 몰입도와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라는 장소의 특성과 레트로 콘셉트가 잘 어우러져, 공간 자체가 옛 시절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엽전을 지급하고 실제로 활용하도록 구성한 방식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엽전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기존 하이틴페스티벌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요소였고, 참여자들에게 그 시절을 체감하게 해 주는 장치로서 효과가 컸습니다.

더불어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장바구니와 콘셉트에 어울리는 손수건을 마련한 점도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진행한 만큼 현장의 분위기와 레트로 콘셉트가 자연스럽게 완성도 있게 조화를 이룬 행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교육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유아와 초등학생이 농촌지역에서도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곡성의 아이들이 먼 곳으로 떠나지 않아도 글로벌 문화를 접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며, 미래 역량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재단은 유아, 초등학생의 발달단계 및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영어쌤'은 놀이·체험 영어교육을 통해 외국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외국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에 강사님들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한다. 두 번째 '글로벌인재양성 유아 영어교육'은 곡성글로벌교육센터에서 출입국 심사·여권 만들기, 영어 동화책을 활용해 감정 표현·생활 단어 익히기 등 체험형 영어 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영어교육'은 사전 레벨테스트를 실시 후 개인별 수준에 맞게 원어민 강사와 1:1로(주 2회, 30분씩) 대화하는 온라인 회화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곡성의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영어쌤



찾아가는 영어쌤



화상영어 교육캠프





글로벌교육
센터 영어교육
프로그램

꿈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 '진로콘서트'



곡성 지역 중학생들이 2025년 12월,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소하고 새로운 동기를 얻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한 '3차 전환기 집중학년제 진로콘서트-꿈을 찾아 떠나는 매직트립'과 1학년을 위한 '진로 토크 콘서트'를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직업인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진로 결정의 중요한 시기를 맞은 3학년 학생 152명은 '여행작가 안시내'와 '국가대표 마술사 전성욱' 멘토를 만났다. 이 콘서트는 딱딱한 강연 대신, 마술 공연과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엔터테인먼트 형식으로 학생들의 집중도를 최고로 끌어올렸다.

이어서 진로 탐색을 막 시작한 1학년 141명은 '진로 토크 콘서트'를 통해 멘토들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했다. '성악가', '상담전문가', '롱보드라이더' 등 다채로운 직업군



참가자 후기

✎ 찾아가는 영어샘

체험과 놀이를 통해 영어를 배우다 보니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교사)
지속적으로 운영되면 좋겠다.(원장)

✎ 글로벌인재양성 유아 영어교육

체험을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교사)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했으며 개선할 점이 없었다.(교사)
아이들이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면 신기해했고, 교육 내내 즐거워하며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교사)

✎ 초등 화상영어교육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학부모)
'다음에도 교육과정을 열었을 때 참여시키고 싶다'라는 의사가 100%였음(학부모)





의 멘토들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학생들과 진솔하게 나누었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직업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문화경험의 기회가 제한적인 곡성 지역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분야의 멘토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앞으로도 곡성형 진로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시대를 주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참가자 후기

김○연(학생)

저는 항상 부모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직업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시내 작가님의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용기 있게 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여행을 통해 진로를 찾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부터라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깊이 고민해 보려고요.

이○호(학생)

“미술 공연이 너무 생동감 있고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특히 미술사님이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끈기를 강조하시는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미술이 단순한 트릭이 아니라, 노력과 창의성이 필요한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진로를 찾을 때 제가 가진 끼를 어떻게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어요.”

박○민(학생)

“상담 전문가 멘토님이 저희 또래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저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편해졌고요. 도전골든벨도 재미있었지만, 멘토님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나의 흥미, 적성, 가치관을 생각해 보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로를 탐색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진(학생)

“성악가 멘토님 강연을 듣고 나서, 예술 분야도 멋있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저도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제 꿈을 위해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멘토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룬 과정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등 교과연계(곡성역사) 강사 교육과정 운영

초등 교과연계(곡성역사) 강사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과 연계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전문 교육 과정으로, 교과서의 핵심 개념을 지역 사례와 연결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교수법을 습득하도록 구성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한 지역주민 12명은 곡성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기 위해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

조준원 곡성문화원장의 강의를 통해 곡성의 선사·삼국·고려·조선 시대의 생활상, 근현대사의 변화, 학습 주제에 따른 역사 인물 탐구, 지역 기록물 조사 등 역사적 사고력과 탐구 역량을 기르는 시간이었다.

재단은 앞으로 지역 기반의 역사교육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 동기

이*(참여자)

곡성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고장에 대해 아는 게 적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한 번 더 알아보고 자긍심을 느껴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참여자)

곡성역사는 교육적으로 큰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수업에 지원했습니다. 교육은 과거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과정이며 그 중심에는 곡성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배운 것은 배움이 일상의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역사 수업을 통해 곡성의 과거를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의 삶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게 돕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장*선(참여자)

곡성에 이사 온 뒤 지나는 곳마다 담겨있는 지역 역사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새로 온 주민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곡성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숙(참여자)

곡성의 역사와 삶을 곡성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곡성에 살고 있음에 자긍심을 갖고 자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역사 인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곡성교육 이야기



김탁환과 함께하는 나만의 책쓰기 (2~9월)



자유학기제 코딩교육 (3~7월)



유아 숲·모험놀이 (3~11월)



청년시민학교 (3~12월)



사진으로 보는 곡성교육 이야기



초등학교 연계 수학아 놀자 (4~11월)



초등학교 직업교육 (7~9월)



꿈키움마루 주말교육 (7~11월)



우리동네 평생문화 공부방 (8~12월)





사진으로 보는 곡성교육 이야기



평생학습 정기강좌 (8~12월)



모두애힐링클래스(석곡 기초수영) (9~10월)



초등학교 로봇창의교실 (9~11월)



휴먼라이브러리(옥과중) (7.2.)



현장 직업체험(곡성중, 옥과중) (7.3.~7.4.)



사진으로 보는 곡성교육 이야기



직업인과의 만남(옥과고) (7.18.)



청소년 연극 프로그램 (7.26.)



꿈키움마루 여름방학 코딩교육 (8.4.~8.7.)



관현악단 여름 집중캠프 (8.4.~8.8.)





사진으로 보는 곡성교육 이야기



개념완성 수학 (8.11.~8.14.)



독서이벤트 곡성지지나이트 (8.22~8.23)



시수학탐험대 (8.23.)



두근두근 곡성갯갯(여름) (8.23., 8.30.)



사진으로 보는 곡성교육 이야기



곡성교육포럼 곡성읍권 (9.4.)



시민 아카데미(김지운박사) (9.18.)



곡성교육포럼 옥과권 (9.18.)



곡성교육포럼 석곡권 (9.25.)



초등 진로한마당 (9.26.)



하반기 1차 개념탄탄 수학 (9.27.~10.25.)



두근두근 곡성갯갯(가을) (10.18., 10.25.)



사진으로 보는 곡성교육 이야기



두근두근 곡성꽃밭(가을) (10.18., 10.25.)



곡성군립청소년관현악단 어린이대축제 공연 (10.25.)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10.28.)



직원역량강화 교육 (11.3.~11.19.)



곡성군립청소년관현악단 제5회 정기연주회 (11.15.)



사진으로 보는 곡성교육 이야기



하반기 2차 개념탄탄 수학 (11.15.~12.13.)



성인문해교실 졸업여행 (11.26.)



성인문해교실 졸업여행 (11.26.)



시민 아카데미(항성 과학커뮤니케이터) (12.4.)



김탁환과 나만의 책쓰기 출판기념회 (12.6.)



성인문해교육 졸업식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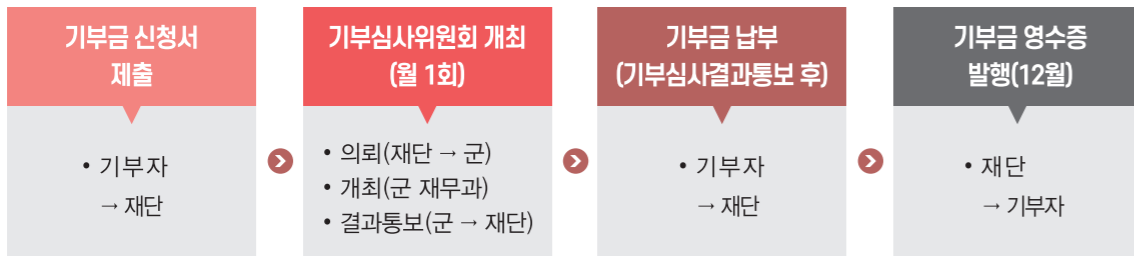


기부금 관련 안내



01 기부 절차 안내

- 기부구분: 일시기부 또는 정기기부(매월 자동이체 가능)
- 기부금액: 5천원부터 자유롭게 선택
- 신청방법: 곡성군미래교육재단 방문 신청 또는 홈페이지의 지정기탁서 서식을 다운·작성하여 이메일(imna1224@gokmg.or.kr)로 신청
- 문의: 행정운영팀 기부금 담당자 061-884-8213



02 기부금 사용처

☞ 지정가능 목적사업

① 기본재산적립	- 재단 기본재산에 적립합니다.
② 장학금 지원	- 관내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③ 지역자원 연계 곡성형 창의교육	- 자연에서 뛰놀며 창의성과 생태감수성을 키워가는 숲·생태교육을 학교 정규 수업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배우며 자부심을 키우도록 지역 교육자원을 학교 수업으로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④ 4차 산업 대응 창의융합 교육	-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steam 교육(코딩, 로봇, AI, 메이커 스페이스, 스마트팜, 놀이수학 등)을 전체 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⑤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 학교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협업, 소통, 공감능력을 키우는 예술교육(관현악단, 연극, 미술 등)을 운영합니다. 그 밖의 학교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⑥ 진로탐색 지원	- 학령기에 맞춰 진로체험교육(진로체험, 진로·진학상담, 학습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 지원	-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활동을 통해 목표를 성취해가는 자기주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⑧ 평생교육사업	- 아이부터 어른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문화 조성을 통해 성숙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기부자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을 지정해주시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통한 교육 참여는 미래 지역 인재를 함께 키우며 지속가능한 곡성을 만들어가는 교육생태계 조성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03 기부금 현황(2025년 11월말 기준)

연도	지정 목적사업	기부금액(원)
2024년	42건(개인 35, 법인·단체 7)	58,248,000
	장학금 지원(30건)	37,638,000
	4차산업 대응 창의융합 교육(5건)	7,090,000
	아동·청소년 문화예술(2건)	2,500,000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 지원(1건)	360,000
	평생교육사업(1건)	5,000,000
	학교교육 및 방과후 활동지원(3건)	5,660,000
2025년	44건(개인 33, 법인·단체 11)	49,715,000
	장학금 지원(21건)	25,765,000
	지역자원 연계 곡성형 창의교육(3건)	2,595,000
	4차산업 대응 창의융합 교육(6건)	5,050,000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교육(3건)	6,145,000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 지원(2건)	2,330,000
	진로탐색 지원(3건)	6,045,000
	평생교육사업(5건)	1,685,000
	학교교육 및 방과후 활동지원(1건)	100,000

04 기부금 사용 내역(2025년 11월 기준)

• 당해 연도 기부금은 연말에 전라남도교육청 사용 승인(기본재산편입예외 및 사용 안) 후 다음 해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사용 내역(2024년 기부금 + 2025년 곡성군 출연금)

세부사업	세부내용	사업비(원)	비고
계		282,619,910	
장학금 지원	장학금 및 격려금	246,509,910	출연금 포함
지역자원 연계 곡성형 창의교육	유아대상 숲 생태 교육 운영물품 제작	500,000	
4차 산업 대응 창의융합 교육	곡성꿈키움마루 창의융합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7,090,000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관현악단 운영 홍보비	1,500,000	
	관현악단 문화체험 및 탐방	5,000,000	
	초중학생 예술교육 운영	10,000,000	
진로탐색 지원	진로멘토 사람책과 함께하는 직업체험 휴먼라이브러리 운영비	5,100,000	
	휴먼라이브러리 재료비 및 물품비	560,000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 지원	하이틴페스티벌 운영비	360,000	
평생교육사업	평생학습 정기강좌 및 우리동네 평생문화 공부방 운영	6,000,000	

2026년 상반기 평생학습 정기강좌 안내

정기강좌 안내

- 교육기간 : 2026. 2. 2.(월) ~ 6. 24.(수) / 20주
- 교육대상 : 곡성군민, 생활인구(만 18세 이상)
- 문의 : 곡성군미래교육재단 평생교육팀 ☎ 061-884-8300
- 수강료 : 과목당 25,000원
- 개설강좌 : 34개 프로그램
- * 생활인구 :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 * 50%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가족포함), 복지카드, 한부모가정 세대원
- - 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인구를 교육대상에 포함

고법	디지털라이프	마음성장수업(MBTI)	보드게임	한글서예	홀라댄스(하와이전통춤)
강사: 정주성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3:00~15:00(수) 강의장소: 국악교실	강사: 정다연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9:00~21:00(수) 강의장소: 컴퓨터실	강사: 정수옥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9:00~21:00(월) 강의장소: 다목적실	강사: 이서현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9:00~21:00(화) 강의장소: 다용도학습실	강사: 김정신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3:00~15:00(목) 강의장소: 다용도학습실	강사: 김정인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3:00~15:00(월) 강의장소: 요가/체력단련실

컴퓨터(문서활용·엑셀)	스마트폰 활용	요가와 명상	신명나는 진도복춤
강사: 오선정 수강인원: 20명 강의시간: 19:00~21:00(화) 강의장소: 정보화교실(3층)	강사: 전영화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4:00~16:00(수) 강의장소: 정보화교실(3층)	강사: 전선미 수강인원: 30명 강의시간: 17:30~18:30(월, 수) 강의장소: 요가/체력단련실(3층)	강사: 김연우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0:30~12:30(화) 강의장소: 요가/체력단련실

재봉교실	라인댄스(중급)	나도 화가다	드럼교실
강사: 박지숙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9:00~21:00(월) 강의장소: 재봉교실(3층)	강사: 황애순 수강인원: 25명 강의시간: 19:00~21:00(월) 강의장소: 요가/체력단련실(3층)	강사: 서현호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9:00~21:00(목) 강의장소: 평생학습실(3층)	강사: 이선홍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9:00~21:00(화) 강의장소: 음악교실(2층)

핀소리 민요	노래교실	수묵캘리그래피	한국화
강사: 박효선 수강인원: 20명 강의시간: 13:00~15:00(화) 강의장소: 국악교실(2층)	강사: 김안숙 수강인원: 40명 강의시간: 14:00~16:00(수, 금) 강의장소: 대강홀(3층)	강사: 이윤화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0:00~12:00(화) 강의장소: 평생학습실(3층)	강사: 오복동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4:00~16:00(금) 강의장소: 평생학습실(3층)

트로트 고고 장구난타	하모니카	라탄공예	서예
강사: 김남선 수강인원: 20명 강의시간: 18:00~20:00(화) 강의장소: 요가/체력단련실(3층)	강사: 김미숙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0:00~12:00(화) 강의장소: 다목적실(2층)	강사: 박성연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8:30~20:30(수) 강의장소: 다용도학습실(2층)	강사: 양찬호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4:30~16:30(수) 강의장소: 서예교실(3층)

장구난타	색소폰	규방공예	생활속의 우리옷
강사: 권영문 수강인원: 20명 강의시간: 10:30~12:30(목) 강의장소: 요가/체력단련실(3층)	강사: 최동근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9:00~21:00(금) 강의장소: 음악교실(2층)	강사: 김봉금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3:00~15:00(목) 강의장소: 재봉교실(3층)	강사: 박정숙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3:00~15:00(목) 강의장소: 재봉교실(3층)

벨리피트니스	우리춤	영어회화	에어로빅
강사: 김민혜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9:00~21:00(수) 강의장소: 요가/체력단련실(3층)	강사: 배선주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5:00~17:00(목) 강의장소: 국악교실(2층)	강사: 스테이시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9:00~21:00(화) 강의장소: 다목적실(2층)	강사: 황인경 수강인원: 20명 강의시간: 9:00~10:00(화, 목) 강의장소: 요가/체력단련실(3층)

신나는 실버댄스	시조창교실	사주명리학	일어회화
강사: 김미선 수강인원: 25명 강의시간: 18:30~20:30(금) 강의장소: 요가/체력단련실(3층)	강사: 김현숙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3:30~15:30(수) 강의장소: 다목적실(2층)	강사: 김선오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9:00~21:00(목) 강의장소: 건강교실(2층)	강사: 슈우코 수강인원: 15명 강의시간: 18:30~20:30(수) 강의장소: 다용도학습실(2층)

신규 강좌

2026년도 1월

곡성교육 탐구영역

구독자 참여 이벤트



정답 제출하기

성명 **꿈쌈이** | 수험번호 **2026-0218**

곡성미소 제8호를 읽고 다음 문항의 정답을 오른쪽 상단의 QR코드를 통해 제출해 주세요. 정답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스캔 → 퀴즈 정답 및 정보 입력 → 제출
이벤트기한: 2026. 5. 31.(일)
결과발표: 2026년 6월 중 개별안내 / 정답자 중 20명 추첨
문의사항: 행정운영팀 061-884-8212

1. 올해 2회를 맞이한 곡성군 평생학습박람회에서는 처음 치러졌으며, 지난 1년간의 배움을 마음껏 뽐내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시화정
- ② 문해골든벨
- ③ 평생학습 정기강좌
- ④ 평생교육 놀이마당
- ⑤ 평생학습 경연대회

2. 청년시민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 ① 조례 제·개정 절차
- ② 청년 정책
- ③ 주민참여예산
- ④ 텃밭가꾸기
- ⑤ 정책 발굴 방법

3. 곡성의 수학 및 과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주)동아시아언스의 어린이수학동아와 함께한 수학 캠프의 주요 교육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 ① 단순 문제 풀이
- ② 시험 준비 강의
- ③ 놀이 활동과 체험 중심
- ④ 온라인 강의 시청
- ⑤ 논술 글쓰기

4. 곡성군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된 이 지역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무형유산 교육도 진행하는 이 유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곡성 판소리
- ② 곡성 죽동농악
- ③ 곡성 강강술래
- ④ 곡성 대동놀이
- ⑤ 곡성 남사당놀이

5.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소하고 새로운 동기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기획된 이 사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진로콘서트
- ② 진로워크숍
- ③ 진로교육
- ④ 진로상담
- ⑤ 진학상담

교육이 곡성을 살리고
곡성사회가 곡성교육을 완성한다.

사람과미래를
인생은즐거운
교육도시
곡성



곡성군미래교육재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да구요?
재단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시да구요?

그렇다면!

재단 SNS채널 바로가기를 통해

지금 바로 방문해보세요!



재단 SNS채널 바로가기